

# 문경찬, 특급 마무리 비법은 '특급 자신감'



**KIA 마무리 투수, 시즌 10세이브로 리그 공동 1위  
정교한 컨트롤 무기로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 높아  
전체 64% 직구 승부...감독·동료들 과감한 승부 극찬**

KIA타이거즈 문경찬이 '특급 자신감'으로 리그를 제압한다. 문경찬은 시즌 초반 불안감을 털어내고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50km를 넘는 강속구는 아니지만 스피드를 뛰어넘는 초특급 자신감이 문경찬의 가장 큰 무기다. 초구부터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를 찾아 넣으면서 말 그대로 정면승부를 하고 있다. 승부 패턴은 단순하다. 중간중간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고 있지만 전체 승부의 64%를 직구로 했다. 이는 투스라이크 이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할 것 없이 직구를 던지면서 빠르게 승부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패턴이지만 대부분의 승부는 문경찬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올 시즌 70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안타와 볼넷으로 내보낸 이는 18명. 지금은 퇴출된 키움 모터만이 유일하게 솔로포를 기록하는 등 문경찬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홈에 들어온 선수는 3명, 문경찬의 자책점으로 기록된 주자는 두 명에 불과하다. 1위팀 NC 원종현에 이어 두 번째로 10세이브 고지를 밟은 문경찬은 "포수 사인대로 던지고 있다. 컨디션 안 좋으면 볼이 좀 많은 편이다"며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다. 지난해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생각하는 문경찬의 최고 무기는 '컨트롤'. 문경찬은 정교한 컨트롤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코너워크를 짜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아내고 있다. 동료들의 눈에는 '과감한 승부'가 먼저 보인다. 외야에서 문경찬의 피칭을 지켜보는 터커는 "뒤에서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공격적인 투구를 하나씩 쉽게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 정말 편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문경찬은 터커의 극찬에 "가운데 던져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하는 야수들도 있다"고 웃었다. 정교하게 스트라이크존을 파고드는 공, 같은 동료들도 놀라게 하는 빠른 타이밍, 문경찬의 '멘탈'도 특급이다. 문경찬은 "1점 차든 3점 차든 점수 차는 아예 신경 안 쓰고 있다"며 자신감 있는 승부를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는 맞을 것이다. 오늘 당장 (블론세이브가) 나와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공을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실패는 문경찬을 더 강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자신감'과 함께 '끝내기 보크'는 문경찬과 떼어낼 수 없는 단어 중 하나다. 2018년 7월 27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문경찬은 연장 11회 끝내기 보크를 기록했다. KBO리그의 5번째 기록. 길었던 연장 승부에 허무한 마침표를 찍은 보크였지만 문경찬의 두려움을 지운 보크이기도 했다. "프로 데뷔전에서 선발승했었는데 그때보다 (끝내기 보크) 임팩트가 더 컸다"며 그 순간을 기억하는 문경찬은 "그런 일도 경험해 봐서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된다. 무조건 내가 이긴다는 생각으로 한다"고 말한다.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는 문경찬. 하나 다른 것은 있다. 바로 '무관중'이다. 문경찬은 "확실히 작년하고 다른 것은 관중이 없다는 것이다. 약간 겁되는 게 덜한 것 같다. 아드레날린이 덜 나온다(웃음)"며 "다시 관중 입장이 되고, 빨리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다"고 관중 앞에서 팀 승리를 지키는 순간을 기약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문경찬

## 김선빈 돌아오니 김주찬 부상 바통

허리통증에 박진태와 엔트리 말소...사이드암 서덕원 입단 첫 엔트리

KIA 타이거즈 김주찬과 김선빈이 부상 바통을 주고받았다. KIA는 지난 22일 '최고참' 김주찬과 '사이드암' 박진태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그리고 2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맞춰 내야수 김선빈과 투수 서덕원을 등록했다. 김주찬과 김선빈은 '부상'으로 인한 자리가동이다. 김선빈은 지난 9일 KT와의 경기에서 적시타 이후 주루 상황에서 허벅지 부상을 호소했다. 검진 결과 다행히 근육 파열 부상은 피했지만 재활 우려가 큰 부위인 만큼 김선빈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차분하게 복귀를 준비했다. 김선빈은 윌리엄스 감독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스피이크를 신은 채 정상적인 베이스러닝'이라

는 조건에 맞는 컨디션을 보이면서 23일 다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선빈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김주찬이 부상자 자리를 비우게 됐다. 김주찬은 지난 2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5경기 만에 그라운드에서 나섰지만 고질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왼쪽 허벅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은 지난 7일 두산전에서 뒤늦게 2020시즌을 시작했지만, '영건'들의 활약 속 부상이 겹치면서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한편 박진태를 대신해 불펜에서 '사이드암' 자리를 채우게 된 서덕원은 2016년 입단 이후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야구 꿈나무들 이젠 주말리그다

진흥고·광주일고 등 27일·28일 경기...김해고 황금사자기 첫 우승

김해고 우승으로 황금사자기가 끝났다. 이제는 주말리그를 통해 위명업을 끝낸 고교야구가 페이스를 끌어올린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고교야구 그라운드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개막한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 경 주말리그 왕중왕전과 함께 다시 열렸다.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시작된 2020시즌 첫 대회는 김해고의 장단 첫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해고는 지난 22일 강릉고와 벌인 대회 결승에서 1-3으로 뒤진 9회 초 3점을 뱉아내며 4-3 극적인 역전승을 이뤘다. 김해고는 황금사자기를 품으며 전국대회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제는 주말리그를 통해 '야구 꿈나무'들의 어필 무대가 펼쳐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말리그 전반기 일정 예정대

로 치러지지 못하면서 지난 20일 주말리그 후반기 일정이 먼저 시작됐다. 전라권 대결은 20일 오전 9시 30분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광주 동성고와 화순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순천 효천고가 20일 광주일고에 11-9 승리를 거뒀고, 21일에는 화순고를 상대로 2-1로 이기며 2승을 올렸다. 동성고와 광주일고는 1승1패를 기록하고 있고, 군산상고가 1승, 나주 광남고가 1패 중이다. 27일에는 함평 대동구장에서 주말리그 일정이 이어진다. 광남고와 황금사자기 4강 진출팀 광주진흥고가 오전 9시30분 경기를 하고, 동성고-군산상고(오후 12시), 정읍 인상고-화순고(오후 2시 30분) 경기가 펼쳐진다. 28일에는 광주일고-군산상고(오전 9시), 광남고-인상고(오후 12시), 진흥고-효천고(오후 2시 30분)의 경기가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부활' 김효주, 다시 출사표

25일 개막 KLPGA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출전

완벽한 부활에 성공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효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포천의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6605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총상금 7억원)에 출전한다. 김효주는 주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코로나 여파로 중단된 가운데 KLPGA 투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김효주는 지난달 KLPGA 투어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즌을 재개한 이후 치른 5개 대회에 모두 출전해 3개 대회에서 '톱5'에 들었다. 첫 대회에서 KLPGA 투어에서 공동 4위로 좋은 출발을 한 김효주는 롯데컨타타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KLPGA 투어 통산 11승을 기록했다. 2016년 1월 LPGA 투어 퓨어실크-바하마 클레

식과 KLPGA 투어 12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 이후 침체기를 겪다가 약 3년 6개월 만에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김효주는 지난 21일 끝난 한국여자오픈에서도 우승자 유소연을 끝까지 1타 차로 추격한 끝에 준우승을 거뒀다. 김효주는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시즌 2승, 통산 12승을 노린다. 유소연, 고진영, 이정은(24) 등 LPGA 투어가 문을 닫은 사이 KLPGA 투어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 다수가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파' 선수들의 경제도 만만치 않다. '디펜딩 챔피언' 조정민과 2016·2017년 연속 우승자 오지현, 2015년 우승자 장하나가 또 한 번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보미, 배선우 등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